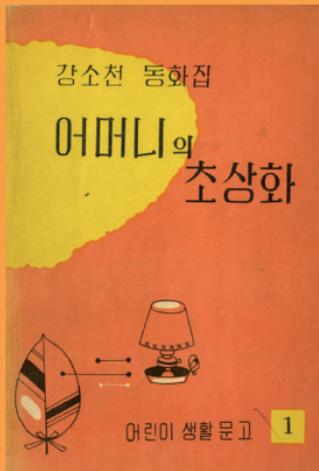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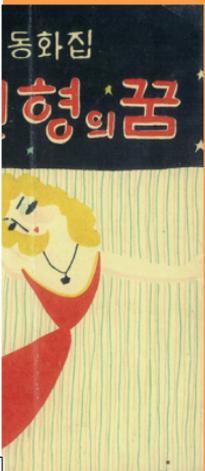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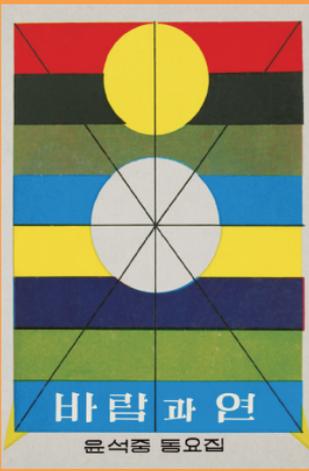


x

2010/10/10







호박꽃 초롱 (강소천 동요시집)



시 강소천
표지그림 정현웅
내지그림 김영덕
138×199mm, 128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5월

+

일제말기인 1941년에 펴낸 이 동요시집은 일제의 강압적인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 글 우리 정서를 지켜냈다는 것과 신문학 이후 우리 문학사상 처음으로 시다운 동시문학의 세계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아동문학사에 길이 남을 보석과도 같은 시집이다. 이 시집의 앞머리에는 당대 최고의 시인 백석이 서시(序詩)를 써서 소천이 병아리와 돌우래, 흰구름과 개울물, 송아지와 꿀벌 등과 함께 자연을 사랑하는 천진무구한 동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시인임을 예찬하고 있다. 여기에 역시 당대의 최고 화가인 정현웅이 표지 장정을 맡았고, 이번 70여 년이 지나서 펴내는 복각본에는 원로 서양화가 김영덕이 본문그림을 그려주셔서 빛을 더했다.

조그만 사진첩 (강소천 동화집)



글 강소천
그림 김영주
138×199mm, 208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6월

+

1952년에 발간된 강소천 작가의 제 1동화집. 13편의 동화와 12편의 동요가 실려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전쟁으로 인한 불행과 슬픔에 빠진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조금이나마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다. 송아지를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보듬어 주는 주인공의 순진무구한 마음을 그린 <박송아지>, 군에 간 오빠와의 따뜻한 그리움과 소식이 오가는 <조그만 사진첩>, 군에 간 오빠와의 따뜻한 그리움과 소식이 오가는 <조그만 사진첩>, 도타운 가족애를 그린 <토끼 삼형제> 등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꽃신 (강소천 동화집)



글 강소천
그림 김영주
138×199mm, 176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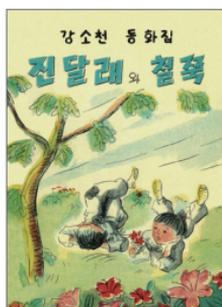
+

1953년에 발간된 강소천 작가의 제 2동화집.

이 동화집의 제목인 <꽃신> 등 16편의 동화와 2편의 동시가 실려 있다. 강소천 동화의 대표작의 하나인 <꽃신>은 아가의 첫돌 때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아버가 선물로 사보낸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림으로서 일어난 비극을 다룬 동화로 발표한 당시 이 동화를 읽고 울지 않은 어린이가 없었다고 한다.

또 <그리운 얼굴>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간 형과 동생과의 사이에 하모니카를 통한 우애가 진한 감동을, <방패연>은 이복에 할아버지를 두고 피난온 소년의 간절한 그리움을 각각 담고 있다.

진달래와 철쭉 (강소천 동화집)



글 강소천
그림 김영주
138×199mm, 156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7월

+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 희성이 영감은 심술궂고 마음씨 고약한 형 연성이 영감의 명령에 따라 두 아들 진달래와 철쭉을 깊은 산속에 버린다. 다행히 사냥꾼 백포수에게 발견된 두 형제는 활 잘 쓰는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 때 마침 서울 대궐에 붉은 여우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처녀 공양을 요구한다. 이 소식을 들은 두 형제는 우여곡절 끝에 여우를 잡아 죽이고 그 덕에 왕의 사위가 되고 헤어졌던 아버지와도 만나게 된다. 권선징악적인 우리의 전래 설화를 서구적 수법으로 엮어 1953년에 발표한 강소천의 첫번째 장편 동화이다.

꿈을 찍는 사진관 (강소천 동화집)



글 강소천
그림 김영주
138×199mm, 152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7월

+

1954년에 펴낸 강소천의 문학적 경향을 대표하는 동화집이다. 모두 13편의 단편동화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들이 꿈을 매개로 하여 이야기 즐거리를 엮어 흔히 강소천을 ‘꿈의 작가’ 또는 ‘꿈의 동화’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는 실향민 작가 자신의 꿈이 현실적으로 좌절된 데서 비롯된 현실도피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꿈을 찍는 사진관>의 주인공 나는 어느 따뜻한 봄날 뒷동산에 올라가 꿈을 찍는 사진관에서 어릴 때 순이와 할미꽃을 꺾고 놀던 꿈을 찍는데, 인화된 사진을 보니 순이는 어릴 적 모습 그대로이나 나는 어른의 모습이었고, 다시 밖으로 나와보니 그것은 동화집 갈피속에 끼어있던 노란 민들레꽃 카드였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환상-현실’을 보이는 것이 강소천 동화의 특징이다.



재미마주 어린이 미술관 3 - 이응노 편

하나에서 만까지



이응노 그림
이호백 글
375×3,000mm, 40쪽
병풍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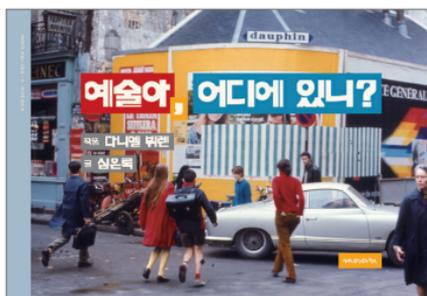
+

고암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 '군상' 속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를 소재로 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한 예술 그림책이다. 특히 이 책은 꾸밈새가 유별나서 한 장의 기다란 인쇄물(375x3,000mm)을 병풍처럼 접이식으로 구분지어 표지를 펼치면 두 면에 걸쳐 춤추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에서 둘, 셋, 넷, 다섯... 백, 천, 만 명까지 기하급수적 늘어난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세어보고, 또 그들의 움직임(움동)을 감상하면서 그 몸짓에 녹아있는 경이로움과 축제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재미마주 어린이 미술관 4 - 다니엘 뷔렌 편

예술아, 어디에 있니?



다니엘 뷔렌 작품, 심은록 글

285×198mm, 52쪽, 올컬러

양장제본 + 아틀리에 별책 + 뷔렌 작품 1점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10월

+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설치미술가 다니엘 뷔렌의 작품을 소재로 하여

그의 예술철학과 설치미술 개념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예술 안내서이다.

뷔렌은 특정한 장소에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직의

스트라이프(줄무늬) 패턴을 설치, 그 공간을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in situ'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주인공 손녀딸 마고가 세계 곳곳에 설치된 이런 뷔렌

할아버지의 작품을 찾아내는 여행을 통해서 설치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쁨이 슬픔이



재미마주 그림책 (근간)

기쁨이 슬픔이



마츠오카 교오코 글·그림

송영숙 옮김

183×207mm, 52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5년 10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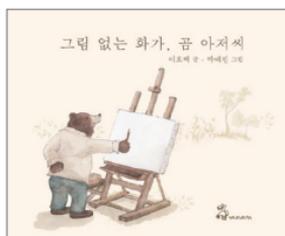
+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일곱 가지 감정을 '칠정(七情)'이라고 하여 기뻐하고(喜), 성내고(怒), 슬퍼하고(哀), 즐거워하고(樂), 사랑하고(愛), 미워하고(惡), 욕심내는(慾)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쁨과 슬픔은 우리들 인생의 감정을 좌우하는 양대 요소인데, 이 책에서는 곰인형을 캐릭터로 삼아 기쁨과 슬픔이 어떻게 우리에게 번갈아들며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에 빠져들게 하는지 재미있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희비의 쌍곡선이 우리들을 번덕스러운 만큼 웃고 울리는 것이다.



재미마주 그림책

그림없는 화가, 곰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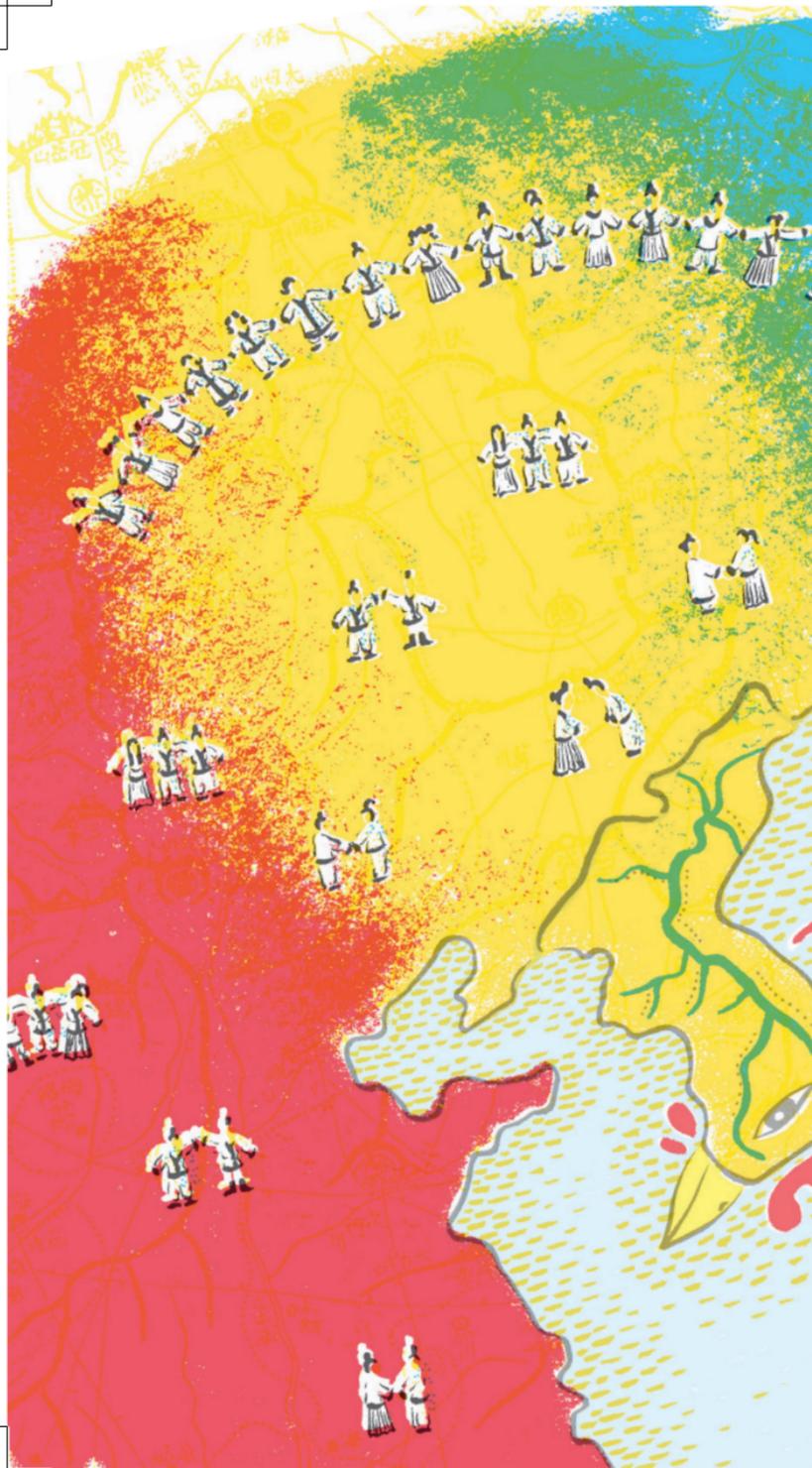
이호백 글, 박예진 그림

230×190mm, 48쪽, 올컬러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 초판발행일 : 2015년 2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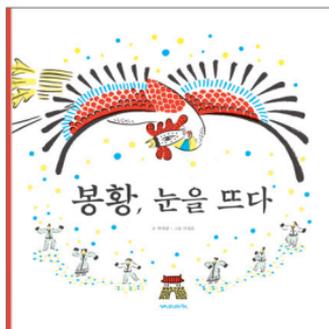
+

깊은 산속의 조그마한 화실, 그림을 그리려 한창 준비 중인 화가 곰 아저씨. 아무도 그의 그림을 본 적이 없지만 곰 아저씨는 오늘도 마당에 나가 이젤과 팔레트를 펼친다. 때마침, 캔버스에 떨어진 직박구리의 똥 빛깔을 보고 병이 난 것을 안 곰 아저씨는 그의 건강이 염려되어 곧바로 약을 지으러 마을로 향하는 길로 접어드는데……. 마을로 내려온 곰 아저씨는 염소 아저씨의 고장 난 약방 선반도 똑딱똑딱 고쳐주고 아이들과 깔깔거리며 놀아주는 등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해 주고 약을 챙겨 들고 돌아오는 길. 어김없이 멋진 자연의 빛깔에 감탄하다가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오늘의 시작. 화가 곰 아저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마당에 나가 이젤과 팔레트를 펼치며 그림 그릴 준비를 한다.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5

봉황, 눈을 뜨다



박세당 글, 이경은 그림
225×225mm, 36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5세 ~ 초등 저학년
초판발행일 : 2014년 5월

+

2014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

옛날, 마고 할머니가 다스리는 마고성 안의 사람들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지유를 마시며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구가 늘어나 식량인 지유가 부족해지자 먹을 것을 다투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본 마고 할머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 굶주림과 추위에 떨게 했다. 성 안의 질서를 지켜주던 봉황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바닷속에 몸을 던져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 넓은 땅이 솟아나게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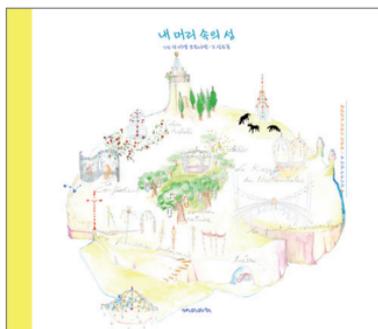
마고 신화를 바탕으로 한 한민족의 탄생기.



Colias
Australis

l'a

내 머리 속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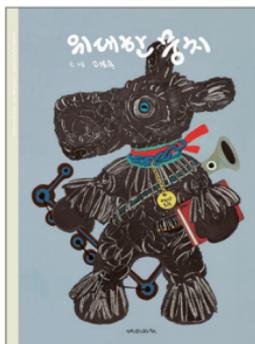
장 미셸 오토니엘 작품, 심은록 글
223×198mm, 60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2년 12월

+

우리의 친구들은 각기 배를 타고 아주 특별한 섬으로 여행을 떠난다. 언덕 위의 붉은 십자가가 안내하는 섬에 도착하여 예쁜 유리구슬로 왕관, 목걸이, 팔찌 따위를 만들고 마법에 걸린 공주가 잠자는 숲 속을 지나 조약돌로 물수제비를 뜨면서 빨간 꽃들이 가득 핀 들판을 지나다. 길을 가는 도중에 분수를 지키는 꽃들도 만나고 높은 등대로 올라가 유리구슬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는 어린 시절의 오토니엘과도 만난다. 프랑스 현대예술가의 작품만을 갖고 엮은 한 편의 동화 같은 환상적인 예술 탐방 여행기이다.



위대한 뭉치



고경숙 글·그림
227×305mm, 32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세 ~ 초등 저학년
초판발행일 : 2006년 3월
재판발행일 : 2014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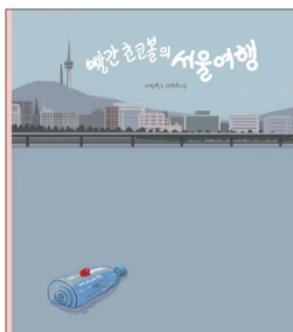
+
2009년 제1회 CJ그림축제 그림책 부문 최종 수상작 선정(5작품)
2009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관 선정작가
프랑스판(메모, 2008), 이태리판(오레키오 아세르보, 2009)

+
홀로동굴에 놀라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는 뭉치.
하루는 동굴벽에 액자를 걸기 위해 쿵쿵쿵 못을 치는
소리에 놀라아줌마가 놀라 쓰러진다. 실신한 아줌마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일곱 골짜기, 즉 칠곡동산을 넘어서
약을 구해 와야 하는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괴물이 나타나
자기의 소원을 들어줘야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과연 뭉치는 일곱 고개를 모두 무사히 넘어서
약을 구해 돌아올까요?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6

빨간 초코볼의 서울여행



이호백 글, 이석연 그림

230×265mm, 36쪽

울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세 ~ 초등 저학년

초판발행일 : 2014년 9월

+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타워와 한강의 유람선,
그리고 드높은 빌딩들의 숲. 이런 풍경을 배경으로
빨간 초코볼의 여행이 시작된다. 어느 날, 초코볼의
봉지를 뜯는 순간 튀어나온 알갱이 하나가 현관을 거쳐
집 밖으로, 다시 아파트 앞 큰길까지 굴러 나온다.
여기서 달리는 트럭바퀴에 끼었다가 하수구로 풍당,
빈 물병에 실려 하수구를 통해 한강물 위로 동실동실
떠간다. 여기서 비둘기의 먹이가 되었다가 시내
한복판에서 떨어져 길 위로 구른다.
이렇게 빨간 초코볼의 파란만장한 여행길은 계속된다.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5

위풍당당 꼬마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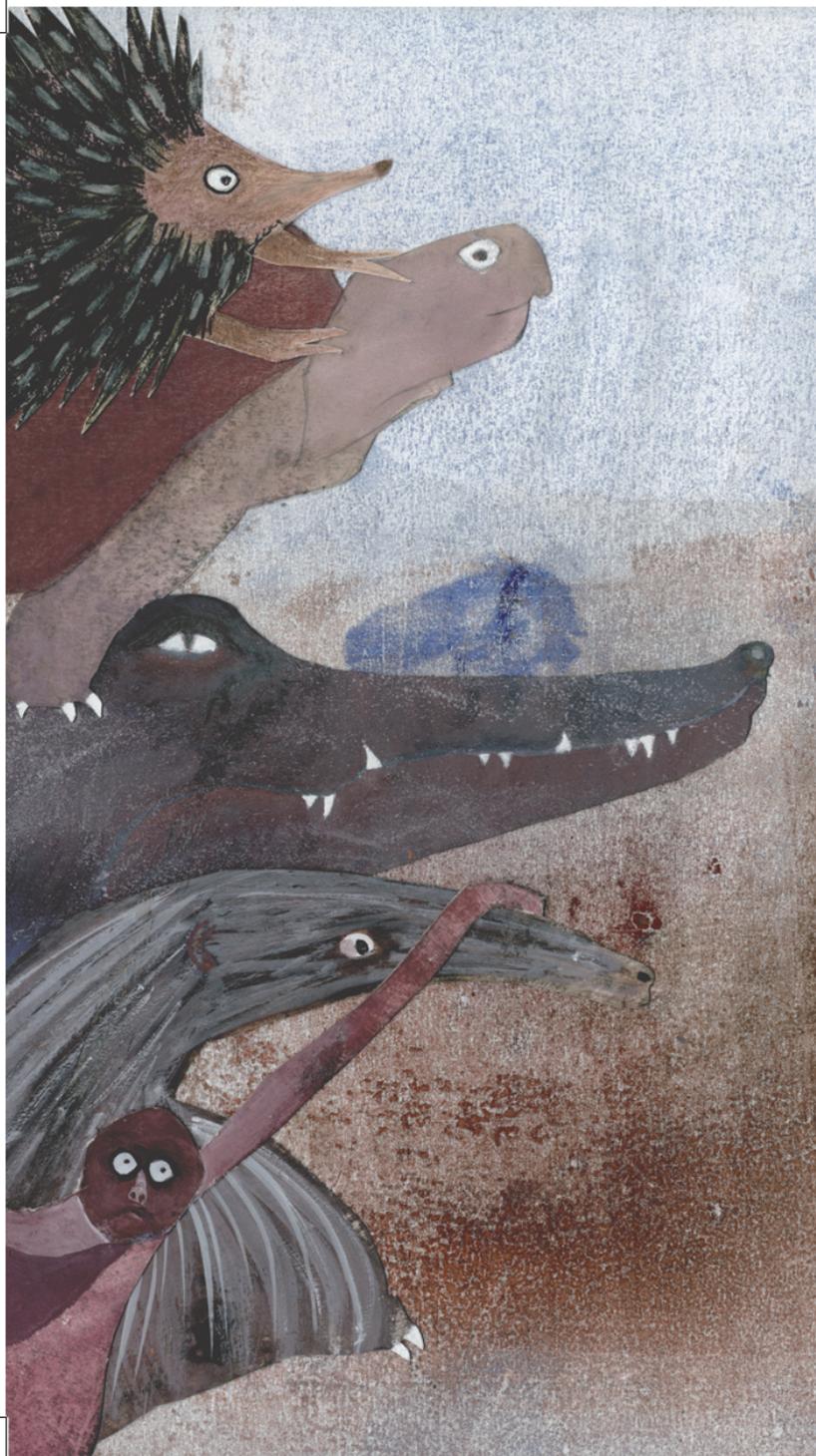
벤자민 파커 글·그림
김영숙 옮김
225×280mm, 32쪽
울컹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3년 11월

+

2014 영국 빅토리아 알버트 북 일러스트레이션 우수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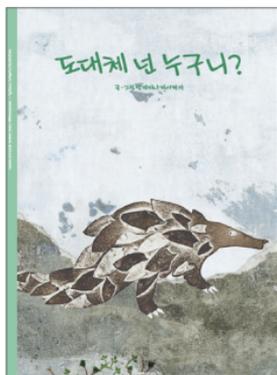
+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꼬마 장군은 장난감 상자로
가서 용감하고 똑똑한 병사들을 모아놓고 외친다. “모든
장난감들을 정복하라! 나는 왕장군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곰돌이, 다음은 알파벳 블록과
모래성, 그리고 인형의 집 등. 그런데 차츰 이런 꼬마
장군의 명령에 병사들은 불평을 하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
모든 장난감들을 정복하고 나면 누구와 놀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전쟁과 파괴보다는 공동선에 이르고자 하는
철학적 명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4

도대체 넌 누구니?



발렌티나 피아첸자 글·그림

이호백 옮김

204×258mm, 40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3년 6월

+

남아프리카의 열대지방에 사는 천산갑이 나들이를 나왔다. 천산갑의 정체는 무엇일까? 악어나 거북같이 딱딱한 등껍질을 가졌으나, 이빨은 갖고 있지 않다. 개미를 즐겨 잡아먹지만 개미핥기는 아니고 나무 위에 살지만 원숭이는 아니다. 가시에 잘 찢리지도 않으며 늘 혼자서 지낸다. 누구는 천산갑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다행스럽게 몇몇은 그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천산갑의 겉모양, 행동, 먹이, 생활습성 등 생태적 특성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희귀 동물을 소개하고 있다.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3

파란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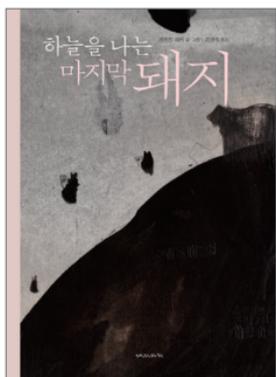
강현선 글·그림
204×258mm, 40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3년 5월

+

별다른 말이 없어도 온 세상 천지에 싱그럽고 따뜻한 새봄이 왔음을 단박에 느낄 수 있는 정겨운 그림책이다. 노랑 가방을 멘 소년은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으며 골목골목을 지나 집으로 가는데 첫 번째 만난 아주머니는 문 앞에 앉아 봄나물을 다듬고, 두 번째 만난 아저씨는 두터운 겨울옷을 봄바람에 말리고 있다. 집집마다 집 밖에 화초를 내놓고 어느 골목에선가 술래잡기를 하며 왁자지껄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온다. 온 동네는 봄빛으로 화사하다. 거기에 봄비까지 내리니 곧 세상은 초록빛에 물힐 것이다. 이른 봄날의 따사로움과 즐거움이 통통 튀는 마치 동시와 같은 그림책이다.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2

하늘을 나는 마지막 돼지



벤자민 파커 글·그림
김영숙 옮김
195×277mm, 40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2년 12월

+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늘을 날던 돼지들은
날개를 잃고 떨어진다. 거짓말 때문에 모조리 떨어지고
하늘을 나는 마지막 돼지가 된 주인공은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부탁하기 위해 달님, 해님, 불여우, 바다,
바람, 늑대 따위를 차례로 찾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누구의 거짓말도 막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다만 어느 높은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가 거짓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하는데……, 하늘을 나는 신비로운 돼지와 거짓말과
자연 파괴를 일삼는 인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진실 추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환상 동화이다.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1

보르네오 섬에서 열린 이상한 경주



발렌티아 피아첸자 글·그림
이호백 옮김
211×300mm, 44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2년 6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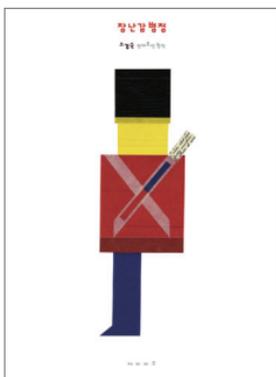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숲 속에서는 해마다 이상하고 희한한 경주대회가 열린다. 원숭이, 날다람쥐 등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재미나게 생긴 동물들이 정글을 배경으로 공중에서 핑핑 아찔하게 뒹박질을 하는 경기이다. 굵뜨기 나무늘보가 심판을 보는 가운데 참가 선수들은 온갖 재주와 꾀를 부리며 각축전을 벌이는데 과연 이 경기에서 우승자는 누구이고 결말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멋진 그림의 이국적인 동물들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흥미만점의 그림책이다.



+

최근의 책들

장난감 병정의 사랑



원작 안데르센
그림 고경숙
158×218mm, 64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1년 4월

+

2013 CJ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장난감 병정의 사랑>은
늦쇠 주걱과 숟가락을 녹여서 만든 외다리 병정과
궁전 성문 앞에서 춤추는 발레리나 종이 인형
아가씨와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로 아름다운 정서와
환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걸작 동화이다. 여기에
그림책 작가 고경숙이 여러가지 색깔의 종이 테이프를
오려서 붙인, 아주 독창적인 콜라주 기법으로 원작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그림동화로 거듭 태어나게 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K 롤링은 이 동화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격찬한 바가 있다.

세계명작 일러스트로북 1

노인과 바다



원작 헤밍웨이
그림 이석연
196×267mm, 72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1년 12월

+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날이 84일째에 이르자 동료 어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그렇지만 혼자서 바다에
나간 지 85일째 되는 날, 마침내 커다란 청새치를
낚아 귀항 길에 오르지만 상어 떼의 공격을 받고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의 잔해와 손바닥의 상처뿐……. 이른바
헤밍웨이 특유의 인간 불패 신화와 실존철학이 담긴
이 중편소설은 1952년 발표되자 이틀만에 530부나
팔렸고 그에게 풀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안겨 준
미국문학의 고전이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이한우 그림, 원동은 글
302×226mm, 36쪽, 울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 초판발행일 : 2011년 11월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우리가 어렸을 적 또래의 친구들과 뛰어놀던
고향산천을 노래한 한 편의 아름다운 서정시를
읽으면서, 가장 한국적인 원로화가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입체적으로 구성된 독특한 스타일의 플랩북이다.
그림을 그린 이한우 화백은 남해안 통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그린 풍경화는 크게 나누어 바닷가 마을,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두메 산골, 그리고 농촌 마을이
대부분인데, 책 끝에는 화가와 그림에 대한 해설을
붙여 그림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재미마주 필라민트 북 1

나하고 놀자



신수정 글, 고경숙 그림
180×155mm, 52쪽, 울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3~6세
초판발행일 : 2013년 6월

+

소녀는 아주 심심하다. 함께 놀 친구가 없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코를 한 대 쳐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달라고 한다. 또 눈을 감기도 하고 눈앞에서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려 어지럽게 해주기를 바란다. 나무 인형 '피노키오'처럼 코를 잡아 길게 늘려보기도 하고 꾸글 꾸글 줄여보기도 하면서……. 책 속에서 얼굴 위의 눈, 코, 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바꾸고 꾸며보기도 하는 아주 재밌는 그림책이다. 장난감같이 가지고 노는 책, 스마트폰처럼 상호작용하는 그런 책이다.

야, 요 책 보라



말리카 도레 글·그림

이호백 옮김

155×217mm, 28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9년 9월

+

책갈피를 하나씩 펼칠 때마다 두 손으로 책을 펴들고 있는 이상야릇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연달아 나타난다. 그들이 소개하는 책은 덩치들을 위한 책, 꼬마들을 위한 책, 함께 보는 책, 노래 부르는 책 등 그 종류도 많고 크기와 색깔도 가지각색이다. 책을 처음 대하는 아이들에게 이처럼 책의 종류는 다양하면서도 참 즐겁고 신비한 언어와 그림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준다. 요 책은 바로 너를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아티스트 말리카 도레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이 유아책은 짹~ 펼치면 하나의 병풍처럼 둘러칠 수가 있어 아이들 책상이나 침대 말의 장식용으로도 쓰임새가 있다.

인생은, 오묘한 수학 방정식



클레망스 강디요 글·그림
김세리 옮김
174×221mm, 84쪽
2도, 무선제본
대상 : 중등학생 이상
초판발행일 : 2010년 2월

+

수학이라면 으레 딱딱하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초등학교 산술에서부터 대수학·기하학·해석학을 거쳐 수리논리학과 전산 및 응용수학에까지 이르게 되면 수학의 개념은 물론 어떻게 풀고 적용하는지 점점 아리송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은 수학의 여러 분야를 8개의 장으로 나누어 그 세부적인 분야의 개념을 줄라맨을 통해서 알기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했다. 더구나 수학을 인생살이에 빗대어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에 다가가게 안내하고 있다.

수리수리마수리 요걸까? 조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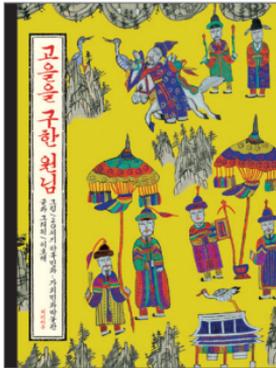


도보로슬라브 폴 구성·그림작업
160×240mm, 18쪽(필름 1매), 울컬러, 양장수제본
대상 : 만 4~7세 / 초판발행일 : 2010년 8월

+

자아, 크게 눈을 뜨고 각 페이지의 그림 위에
빗살무늬의 투명한 필름을 갖다 대어보자. 두루미
얼굴 속에 가위가, 크로와상 빵 속에 초승달이,
전구 속에 서양배가……, 이런 식으로 각 그림마다
전혀 색다른 또 하나의 그림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흔히 우리는 상식적 판단으로 불가능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마술(매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비한 매직쇼를 통해서 아이들은 재미있는 오락을
즐기고 기발한 창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고을을 구한 원님



이호백 글·그래픽
자료그림 가회박물관
215×272mm, 40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10년 10월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우산을 쓴 원님이 부임해온다.
그런데 이 고을은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가뭄 퇴치가 큰 과제였다. 새로 온 원님은 온
고을의 학자와 무사들을 불러 모아 가뭄 퇴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했으나 좀처럼 묘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한 꼬마가 나타나 자기는 동물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 두루미의 짹을 찾아주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한다. 꼬마의 말대로 두루미의 짹을 찾아주자 그렇게
기다리던 장대비가 내린다. 자연스럽게 우리 민화를
감상할 수 있게 안내도 해준다.

재미마주 아카데미 1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 vol.1



책과 어린이,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인문학

즈느비에브 파트 글
황선희 옮김
150×220mm, 368쪽, 무선제본
대상 : 고등학생 이상
초판발행일 : 2015년 1월

+

지은이가 프랑스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즐거운 시간>
도서관과 미국 뉴욕의 공공도서관에서의 연수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도서관의 탄생과
발달과정을 소개한 도서관에 관한 인문학.
특히 책과 어린이의 공생관계에서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책이 지닌
매력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도서관 사서는 물론
대학에서 문헌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공부하고 있는
예비 사서, 그리고 어린이책 작가들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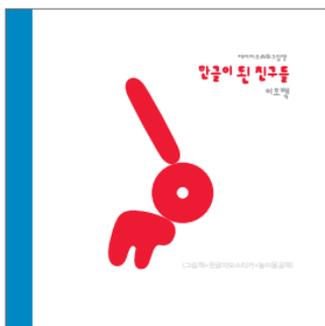
+

그림책

재미마주 그림책은 그 동안
우리가 흔히 보아온
그림책들과는 달리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마음이
오롯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재미마주 A'Q그림책 시리즈-1

한글이 된 친구들



이호백 글·그림
240×240mm, 44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3세 이상
초판발행일 : 2008년 11월



+
2009년 제1회 CJ그림책상 수상
한국어린이도서상 (기획 · 편집 부문)

+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소리글자로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아이들은 쉽게 한글을 깨우친다.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 모양은
그냥 그림일 뿐이므로 24자의 자음과 모음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맞추어 보는 가운데 토끼·강아지·나비와
같은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또 책 뒤의 부록인 한글 자모 스티커를 가지고 노는 동안
아이들은 한글의 아름다운 구조와 질서를 느끼며 금방
디자인 천재, 한글박사가 된다.

재미마주 A'Q그림책 시리즈-2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야기



박진의 원작
재미마주 디자인부 꾸밈
240×240mm, 44쪽
올컬러, 양장제본
대상 : 만 3세 이상
초판발행일 : 200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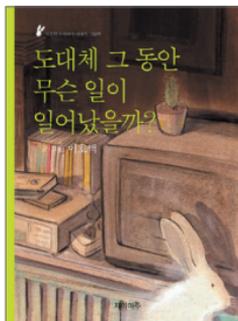


+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기본 그림꼴은
동그라미·세모·네모이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우리 아이들은 이 3가지 그림꼴만 가지고서도
물고기·새·꽃·탑·로봇 등 못 만들어 내는 것이 없다.
깜깜한 밤에 동그라미·세모·네모는 로켓이 되어 머나먼
별나라로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아름다운 놀이동산을
만드는데……. 우리 아이들의 놀라운 상상력이 빛어낸
신나고도 재미난 예술·디자인 그림책. 부록으로 스티커
놀이 세트가 있어서 아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재미마주 그림책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글·그림
195×267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0년 10월

+

2003년 뉴욕타임즈 선정 우수그림책

어린이도서연구회, 책따세, 한우리 필독 추천도서
인터파크, Yes24, 알라딘 베스트셀러 유아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미국판(케인밀러), 프랑스판(파스텔), 일본어판(헤본사),
이스라엘판(젤트너), 스웨덴어판(베르흐)

+

아파트 베란다에서 사는 토끼가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 토끼는 베란다 문을 통해 사람들이 한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한다. 냉장고를 뒤져 맛있는 밤참도 해먹고, 비디오도 보고, 화장대에 올라가 화장품을 찍어바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장난감으로 신나게 한바탕 놀고 난 토끼는 식구들이 돌아오기 전에 베란다로 돌아간다. 마치 그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미마주 그림책

토끼 탈출



이호백 글·그림

287×215mm, 28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 초판발행일 : 2006년 1월

+

2007년 BIB 선정도서

2009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관 선정작가

+

뉴욕타임즈 2003 최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작가

이호백 아저씨의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이은 토끼 이야기 제2탄. 지난번에는 식구들이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으로 들어온 '빨빨이'의 이야기를 보여 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빨빨이'가 낳은 '예빠'란 이름의 토끼가 벌이는 깜찍하고도 재미 만점의 탈출 소동. 아무리 튼튼한 우리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가놓아도 착하고 날쌔고 똑똑하고 힘센 토끼는 탈출하여 말썽을 부리는데……. 어디 이 녀석이 얼마나 탈출의 명수인지 한번 볼까요?

재미마주 그림책

마법에 걸린 병



고경숙 글·그림
210×260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5년 5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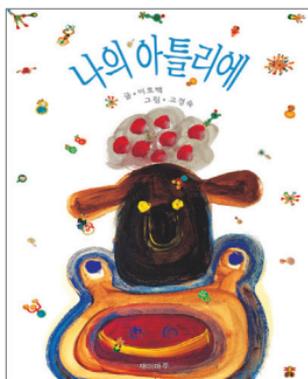
2005년 BIB 한국 대표 우수작
2006년 볼로냐 아동도서 박람회 픽션부문 라가찌 수상작
2006년 르몽드 선정 아티클 우수도서
2009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관 선정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프랑스판(세이유, 2007), 중국판(인민교육출판사, 2014)

+

어느날 동네 슈퍼에서 사온 물건들. 하지만 병 속에 비누며 초콜릿, 사탕 등 전혀 엉뚱한 것들이 들어 있다면? 마법에 걸린 병 속에 감추어진 온갖 동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아이들과 한판 재미난 소동을 벌이는데, 이런 소동은 장난기 많은 한 마법사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매력 만점인 이 책 한 권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은 쑥쑥 자라날 것이다.

재미마주 그림책

나의 아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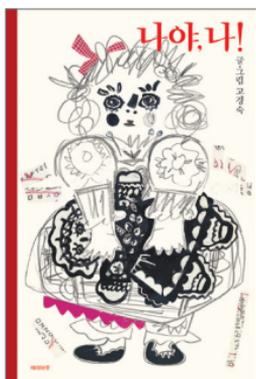
이호백 글
고경숙 그림
207×300mm, 24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6년 3월

+
프랑스판(메모, 2009)

+
어린이의 예술적인 두뇌를 깨우쳐 열어주는 창작
그림책으로 여러 종류의 선과 도형,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보여 줌으로써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이
자라나 그림에 취미를 붙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의 머리 속에서 잠자는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힘이 생겨나게 하는 아름다운 화집같이
추상적인 그림으로 꽉 찬 책이다. 아이들에게는
교과서적인 그림그리기의 지도보다는 상상력만으로도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미마주 그림책

나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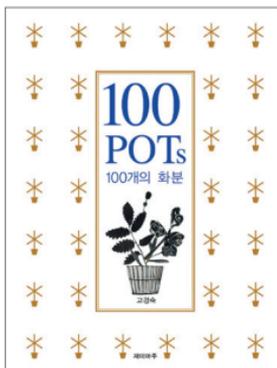
고경숙 글·그림
210×315mm, 30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9년 8월

+
2009 C.J그림책상 수상(기획·편집)
프랑스판(메모, 2010)

+
어느날 세상에 태어난 미미는 우주 어딘가에 버려진
느낌이 들어 누가 자기를 버렸느냐고 외친다. 그러자
피아니스트, 발명가, 산책하던 소년, 교통순경,
스키선수…… 등등 모두가 자기가 버렸다고 버린 이유를
댄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화가는 자신이 버린 것은
곱슬머리에 분홍 체크 무늬 리본 달고, 꽃무늬
원피스에 검정 플렛슈즈를 신은 여자아이를 그린 그림
한 장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미미를
버린 것일까?

재미마주 그림책

100개의 화분



고경숙 글·그림
135×95mm, 30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7년 11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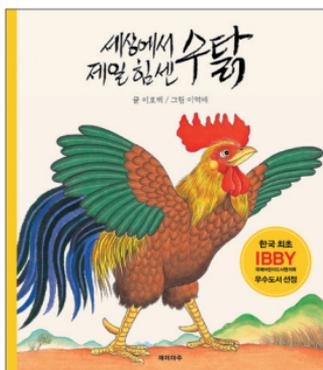
고급 수제본으로 프랑스에서 전사와 함께 초판 판매가 이루어짐.

+

꽃을 좋아하는 한 소녀의 상상력이 빚어낸 예쁘고도
깔끔한 그림책. 책의 크기가 어른 손바닥만한 데다가
30쪽 분량의 미니 북에 불과하지만 꽃나라 왕국을
지켜내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문제를
풀어가는 숨씨가 오롯하게 담겨 있어 흥미진진하다.
특히 미니 북을 담는 골판지 액틀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액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덤으로 읽는
이가 자기 나름의 꽃과 화분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백지 부록까지 곁들어 있다.

재미마주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호백 글
이억배 그림
225×256mm, 36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1997년 2월

+

한국 최초 IBBY 선정 우수도서(1999)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1학년 1학기, 2009)
2009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관 선정작가
인터파크(유아부문) 1위, 알라딘 유아 베스트셀러,
Yes24 유아 베스트셀러, 중국판

+

아주 힘센 수평아리 한 마리가 태어났다. 수평아리는
느림하게 자라서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슬픔에 빠진다. 그때 수탉의 부인이 다가와
건강하게 자라는 손자손녀, 건장한 아들과 딸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그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임을
일깨워 준다.

재미마주 그림책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채인선 글, 이억배 그림

228×266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1998년 1월

+

어린이문화진흥회 문화대상 미술부문 수상(1998)

어린이도서연구회, 책교실, 한우리 필독 추천도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1학년 2학기, 2009)

인터파크, Yes24, 알라딘 유아 베스트도서

+

손 큰 할머니는 해마다 설이 되면 숲 속 동물들과 만두를

빚는다.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만큼 많이 하는 설날

만두다. 올해에도 할머니는 동물들과 만두피를 넓게 깔고

만두소를 그 안에 몽땅 쏟아 붓고 아주 큰 만두를 하나

만든다. 설날 아침, 숲 속 동물들은 그 큰 만두를 나눠 먹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데…….

재미마주 그림책

표범의 얼룩무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루디야드 키플링 원작, 송수정 그림
295×220mm, 36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 초판발행일 : 1997년 2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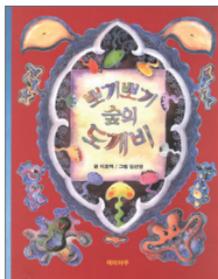
노마 콩쿠르 일러스트레이션전 입상(1996)
2009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주빈국관 선정작가

+

동물들의 얼룩무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이 얼룩들은 왜 조금씩 다를까? 아이들이 궁금해 할 만한 물음에 루디야드 키플링은 재치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 답하고 있다. 즉 표범과 사냥꾼은 자신들의 무늬없는 몸이 너무 눈에 잘 띄어 사냥하기 위해 몸에 무늬를 넣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의 유명한 단편 우화집인 『이런 이야기들』 중의 한 이야기이다.

재미마주 그림책

뽀끼뽀끼 숲의 도깨비



이호백 글, 임선영 그림
224×295mm, 40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1997년 4월

+

어린이도서연구회, 한우리 필독 추천도서

+

도깨비는 어디서 왔어? 뽀끼뽀끼 숲에 사는 우스운 이름을 가진 꼬마들과 덩찌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혀먹히면서 긴 이름의 새로운 꼬마덩찌가 생겨났는데 그 이름을 줄여 도깨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이 책 속에서 기존의 도깨비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의 도깨비 캐릭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주 요란하고 장난스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상상력이 팍 찬 그림책이다.

재미마주 그림책

도시로 간 꼬마 하마



이호백 글·그림
188×266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1999년 3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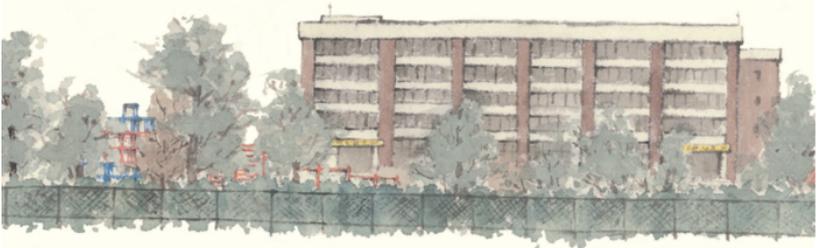
하마촌에서는 매년 하마들의 올림픽이라 할만한 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이 축제 기간 중에 하는 시합들은 주로 입 크고 먹성 좋은 하마들이 이기는 시합들밖에 없다. 이 시합에서 이긴 하마들은 큰 꿈을 갖고 도시로 나간다. 우리의 입 작은 꼬마 하마는 도시로 간 하마들이 보고 싶어 도시로 나가 동물원에 갇혀 사는 하마 아저씨들을 만나게 된다. 꼬마 하마가 마을로 돌아온 뒤부터 이 마을의 축제는 입이 크고 작고, 먹성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경기 말고도 다양한 경기를 펼쳐 더욱 즐거운 잔치가 된다.

+

학급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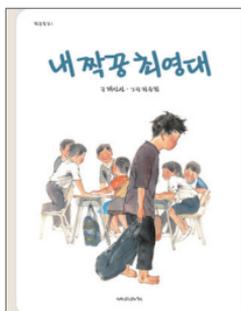
학급문고 속에는 어린이
여러분을 담은 친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학급문고 속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새롭고도
친근하여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재미마주는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급문고 1

내 짝꿍 최영대



채인선 글, 정순희 그림
188×250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1997년 4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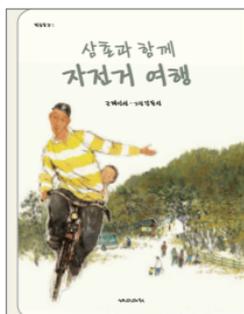
디자인하우스 그래픽상 수상 (1997)
어린이도서연구회, 전교조, 책교실 추천도서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아동 베스트도서
Yes24 어린이 도서상 수상 (2008)

+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영대는 말이 없다.
영대를 놀리는 이유는 엄마가 없고 말이 없으며,
차림새가 지저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어느 학교에나 있음직한 왕따 최영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보살펴 준다고 한다

학급문고 2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채인선 글, 김동성 그림
188×250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1998년 6월

+
책교실 추천도서
프랑스판 (찬옥, 2009)

+
선미는 군에서 휴가 나온 삼촌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네 산책을 나간다. 삼촌이 들려주는 어린 시절의 동네는 논과 밭, 뒷동산과 개울물이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개발 바람을 타고 뻑뻑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건물, 도로로 바뀌었고, 그 속에서 놀던 아이들도 이제는 몇몇 어른들의 추억속에서만 살게 되었다.

우리네 옛 번두리 자연이 도시화로 인하여 훼손돼 가는 쓸쓸함과 아픔이 가슴에 오래 남는다.

학급문고 3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글, 고경숙 그림
188×250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1999년 7월

+

SBS 어린이미디어 대상 (2001)

우수 그림책 부문 금상

어린이도서연구회, 책교실 추천도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3,4학년 1학기, 2010)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아동 베스트도서

Yes24 어린이 도서상 수상 (2011)

+

새로운 학교로 전학온 종민이는 이 학교의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벌이는 놀이에서 매번 놀림감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오줌은 마려운데 화장실

가기가 겁이 난다. 종민이는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말고

좋은 꾀를 생각해 낸다. 요즘 아이들의 밝고 순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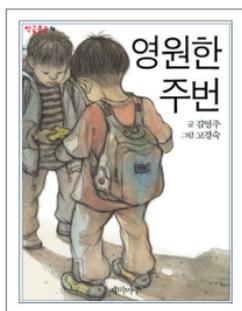
친구 사귀기 이야기. 아이들의 심리적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이 긴 여운을 남기며 가슴에 친근감과 포근함을

오롯이 피어나게 한다.

학급문고 4

영원한 주변



김영주 글, 고경숙 그림

188×250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초등 1~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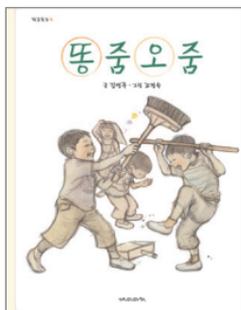
초판발행일: 2000년 11월

+

육이는 꿈에 그리던 주변이 되었으나 주변 명찰이 모자라 받지 못한다. 친구의 명찰을 잠시 빌려 쓰기로 한 육이는 자신과 처지가 같은 기태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는다. 육이는 시장에서 산 기태의 명찰을 사서 이제 영원한 주변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린이들의 몸짓과 표정을 담은 사실적인 데생과 시원한 여백은 독자들을 글과 그림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 독서의 새로운 습관을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게 한다. 『짜장, 짬뽕, 탕수육』의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가 화음을 이루어 만들어 낸 두 번째 이야기이다.

학급문고 5

똥쫓오줌



김영주 글, 고경숙 그림

188×250mm, 56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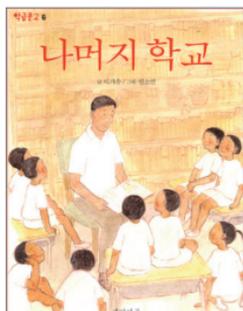
초판발행일 : 2002년 1월

+

수복이는 장난꾸러기로 선생님한테 그렇게
흔났는데도 어느새 잊어버리고는 또 장난을 친다.
그러던 어느날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시지
않아 학과 수업 대신 글짓기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옆 반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공명선거를 위한
글짓기를 함. 잘 쓴 어린이에게는 상 줌'이라는
글을 보고 수복은 또 다른 장난을 생각해 내는데,
어린이 세계에 리얼하게 접근하여 요즈음 아이들의
일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예리한 문장과 그림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학급문고 6

나머지 학교



이가을 글, 임소연 그림
188×250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02년 5월

+
YWCA 추천도서

+
읍내 학교로 가는 통학버스를 놓친 채욱이의
발길을 조용히 잡아 이끈 곳은 다름아닌 바로 얼마
전까지 채욱이가 다니던 이미 폐교가 된
고운마을초등학교다.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설렘으로 채워주시던 김달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곳에서 채욱이는 혼자 선생님도
되고 학생도 되는 모노드라마를 하기 시작한다.
모노드라마가 있는 동안 그 이름도 예쁜
고운마을초등학교는 채욱이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학급문고 7

모기는 착하다



조재훈 글, 이호백 그림
250×188mm, 52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05년 2월

+
환경실천연합회 추천도서

+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을 제사 지내기 위해
49일 동안 절집에 드나드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온
명수는 저물녘 어둠 속에서 옷통을 벗고 모기들이 실컷
피를 빨아 먹도록 보시하는 큰스님을 보고 놀란다.
명수는 큰스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기가 얼마나 정직한데. 사람을 물 때도 소리를
지르며 와서 물지 않든? 언젠가 부처님께서 모기도
귀하게 쓰실 때가 있을 거야.”라는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은 머잖아 명수에게 일어날 위급한 사건으로
증명이 되는데…….
자연사랑과 생명사랑, 그리고 환경사랑을 알기 쉽게
풀어쓴 이야기이다.

학급문고 8

흥부네밥



전방하 글, 이소현 그림

188×250mm, 48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05년 10월

+

혜진이네가 변두리 마을로 이사가는 데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시골에 온 혜진이는 새 식구가 된 하얀 강아지와 깡총깡총 뛰어놀고, 단짠인 정현이와 피아노 학원을 함께 다닐 수 있어 신이 난다. 하루는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푸성귀를 등성등성 썰어넣고 참기름과 고추장으로 쓱쓱 비빈 비빔밥을 내놓으므로 혜진이는 개밥을 주느냐고 벌컥 화를 내고 앵 돌아간다. 도시 변두리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슴 찡한 가족 사랑의 이야기가 밝고 따뜻한 파스텔톤에 담겨 한 폭의 산뜻하면서도 잔잔한 감동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학급문고 9

젓가락 행진곡



전방하 글, 이소현 그림
188×250mm, 50쪽
4도, 반양장제본
대상: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07년 1월

현정이는 못사는 동네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이사를
가자고 조른다. 그러나 사실은 옆집에 사는 같은 반
친구 승준이 때문이다. 승준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살지만 무엇이든 척척 잘해내는
우등생이다. 그러한 승준이 보다 현정이가 잘하는 것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것뿐인데…….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싫어서 뽀로통해진 여자 아이의 심리적 갈등을 검정과
연한 갈색 톤에 담아 아름답게 그려내었다.

『젓가락 행진곡』은 가난하지만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차가운 세상살이를
훈훈하게 덮혀주는 『우정 행진곡』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학급문고 10

Hello, 도시락 편지



신정순 글, 임은진 그림
190×250mm, 60쪽
울컬러, 무선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12년 9월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미국 시카코의 초등학교 4학년, 백인 학생들만 있는 교실에서 별이는 유일한 한국 여학생이다. 3년 전에 미국 학교로 전학 온 별이는 이제 공부도 제법 잘하고 미국 아이들과도 잘 어울려 지내지만 엄마는 식당에 취직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영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러 학교 행사에는 참석할 엄두를 못 낸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별이는 전교생 단어 퀴즈대회에 나가 당당히 우승 메달을 받는 등 나중에는 엄마와 따뜻한 화해를 하게 된다. 이 책의 뒷 부분에는 작가가 직접 쓴 '도시락 편지 <영문편>'을 붙여놓아 영문 동화를 읽어보는 아주 독특한 즐거움도 맛보게 된다.

뛰엄질과 풀쩍이



장주식 글, 이소현 그림

226×198mm, 52쪽, 4도, 무선제본

대상 : 7세 이상 / 초판발행일 : 2008년 1월

+

2008년 우수 환경도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모를 내려고 물을 받아 놓은 무논에서 개구리들은

짜짓기에 바쁘다. 뛰엄질과 풀쩍이도 알을 낳아

수정시키지만 인간이 만든 트랙터와 농약으로 인해

올챙이로 깨어나기가 무섭게 죽임을 당한다.

또 살아가면서 동사리, 뱀, 까치 따위 천적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침내 인공으로 만든

다정이네 연못에서 수많은 올챙이를 바라보면서

식구들이 불어날 생각으로 가슴이 부푼다.

초록학급문고 2

감나무골의 겨울



유소림 글, 오건업 그림

226×198mm, 52쪽, 4도, 무선제본

대상 : 7세 이상 / 초판발행일 : 2009년 12월

+

감나무골의 꽃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자 할머니는 혼자 농사를 짓고 꽃감도 만들며 외롭게 지낸다. 이따금 찾아오는 사람은 우체부 아저씨뿐.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자 그마저 찾아오지 않고 산골 마을은 완전히 인적이 끊긴다. 그런 어느 날 주인 잃은 개 한 마리가 찾아오고 도시의 딸이 말긴 개와 동무가 되어 함께 뛰어놀면서 산골 마을은 아연 활기를 되찾는다. 이윽고 봄이 돌아오자 우체부 아저씨가 다시 찾아오고 새들과 짐승들은 모두가 행복한 봄맞이에 분주해진다.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겨울나기.

고야네 오누이



장주식 글, 박철민 그림

226×198mm, 52쪽, 4도, 무선제본

대상 : 7세 이상 / 초판발행일 : 2010년 12월

+

어미 고라니는 새끼를 낳고 너굴피, 하늘뵈, 나무순, 고야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고야 남매들은 별탈없이 자라지만 주위에는 너구리, 삿, 수리부엉이 등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런 어느 날 너굴피가 수리부엉이에게 죽임을 당한다. 어느덧 겨울로 접어든 11월, 어미 고라니는 다 자란 새끼들에게 헤어질 것을 선언한다. 고야네 세 오누이는 먹을 것을 찾아 길을 건너다가 하늘뵈가 자동차에 치어 비명횡사한다. 이제 살아남은 나무순과 고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고라니 가족의 비극을 통해서 바라본 한 생태문학 작가의 피맺힌 절규가 가슴을 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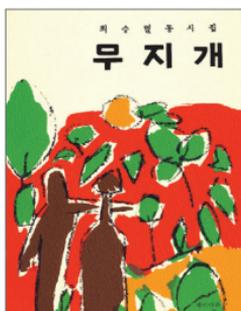
보석바구니

지난 50~60년대에 펴낸
어린이책들은 거기에 실린
글이나 책의 만듦새 또한
참으로 소박하고 아름다워서
출판예술의 걸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았다.
언제 읽어도 가슴 따뜻하고
티 없이 맑은 동심을
보석 바구니에 담아보았다.



아동문학 보석바구니 1. 동시집

무지개 (최승렬 동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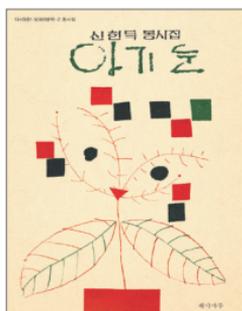
시 최승렬
표지그림 김소남
내지그림 이호백
145×205mm, 76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08년 11월

+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지난 1955년 지방의 한 조그만 출판사에서 간행된 이후 곧 절판되어 시인의 이름은 커녕 이러한 시집이 있었는지조차도 까마득하게 잊힌 그런 책이다. 한국동시 100년을 맞는 해에 발굴되어 표지와 체재 등을 옛 시집의 모양 그대로 살려 다시 펴냈다. 시인의 시를 한 줄 한 줄 읽다보면 가슴 속에 아련하게 작고도 아름다운 고향 풍경, 고향의 동식물과 정다운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나는데, 시인은 이러한 정경들을 아주 감칠맛 나는 간결한 언어로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내었다.

아동문학 보석바구니 2. 동시집

아기 눈 (신현득 동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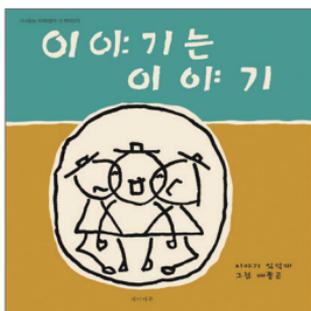
시 신현득
그림 정점식
145×205mm, 88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09년 5월

+ 민족적·향토적 서정이 짙은 언어로 새로운 삶에 눈뜨는 어린이들의 심상과 세계를 꾸밈없이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인이 1961년에 펴낸 첫 시집. 이후 지난 반세기를 오로지 동시만을 생각하고 동시 쓰기에 평생을 바쳐 그동안 무려 1,200여 편의 동시를 썼으며 이를 묶어 20여 권의 동시집을 펴냈다. 신현득 시인은 아동문학계에서는 동시문학으로 학위를 받은 문학박사인 동시에 동시 할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시집에는 〈문구멍〉 〈참새네 말 참새네 글〉 〈이상한 별자리〉 등 34편이 실려 있다.

특히 표지와 내지 그림을 그려서 꾸며준 정점식 화백은 평생을 추상적인 세계에 몰두하여 현대화풍의 길을 걸어온 원로화가로 친근감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 주고 있다.

아동문학 보석바구니 3.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



이야기 임석재
그림 배종근
198×198mm, 78쪽
2도,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0년 3월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
동요와 동화, 그리고 이야기책이 없었던 예전의 아이들은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이렇게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인 전래동요와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인 민담 중 가장 재미있는 21편을 뽑아서 새로 묶어내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우리 조상들의 넉넉한 마음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동심에 푹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야기를 모은 임석재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제1세대의 민속학자로서 그가 평생을 통해 모은 『한국구전설화(전12권)』는 한국 민속학의 귀중한 자료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다.

흠손 엄마 (김종상 동시집)



시 김종상
그림 오수산
145×205mm, 134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0년 8월

+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자연과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노래한 시인이 1964년에 펴낸 첫 동시집. 그때는 6.25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서인지 시인은 '책 꼬리'에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의 너희들은 남의 구호물자와 옥수수 죽을 얻어먹고, 휴전선을 두고 전쟁놀이를 하며 자라지만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강산의 얼을 지닌 너희들의 내일의 꿈은 역시 크고 찬란하다는 것을 믿으며 이 노래들이 너희들의 자라는 마음에 조금의 양식이라도 되어주길 바란다."고.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읽어보는 시인의 동시집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다. 김종상 시인은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원로 시인으로 동요·동시의 현대화 및 위상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동문학 보석바구니 5. 동요집

바람과 연 (윤석중 동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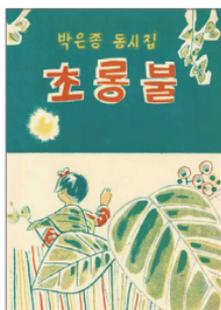
시 윤석중
그림 김영덕
145×205mm, 96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1년 9월

+

지난 2011년은 윤석중 선생이 탄생 100년을 맞는 해였다. 윤석중 선생은 한국 아동문학을 처음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사에 화려한 금자탑을 세운 동요시인으로도 유명한데, 탄생 100년을 맞은 기념으로 복간한 동요집이 바로 <바람과 연>이다. 이 동요집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은연 중에 부끄럼을 타는 꽃봉오리, 오월에 내리는 파란 비, 은굴레를 쓰고 꽃모종을 하고 있는 아이들, 글공부하는 개구리 등 한없이 아름답고 순수하며 꾸밈이 없는 동심의 세계를 여행하게 된다. 표지와 속그림은 서양화가 김영덕 선생이 그렸다.

이동문학 보석바구니 6. 동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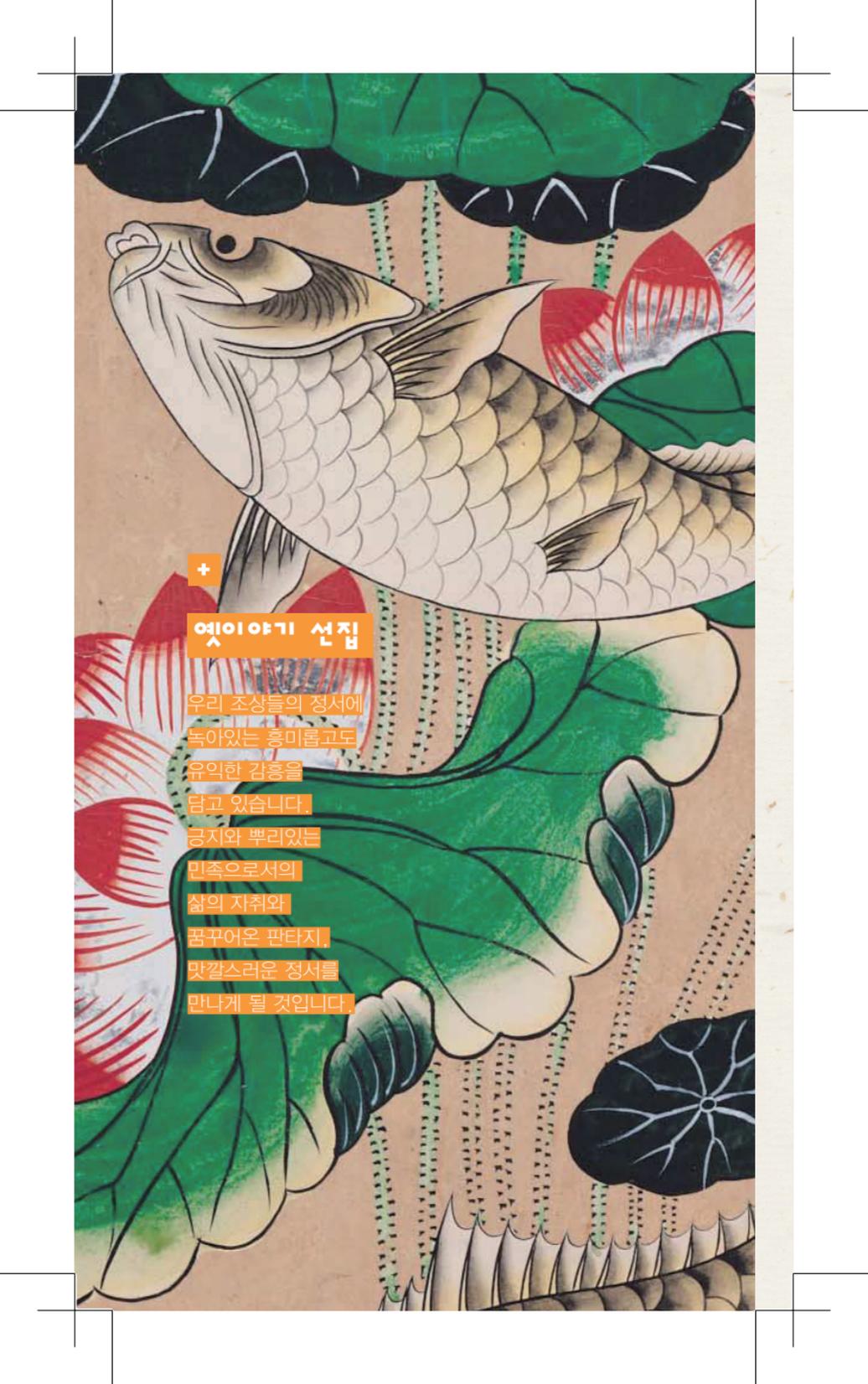
초롱불 (박은중 동시집)



시 박은중
145×205mm, 112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초판발행일 : 2014년 7월

+

박은중(본명 박화목) 시인이하면 얼른 떠올려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가 동요 <과수원 길>과 가곡 <보리밭>이다. 그만큼 이 두 노래는 부르기가 쉬운 데다가 정감 있는 가락이 포근한 서정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노랫말이 우리들 어린시절 하얀 눈송이같이 날리는 아카시아 꽃잎처럼, 청보리밭에 타오르는 저녁놀처럼 아련한 그리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누구나 즐겨 부르는 애창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처럼 박은중 동시는 단순한 듯이 보이며서도 아늑한 꿈과 맑은 동심과 향토에 대한 목가적 서정성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적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매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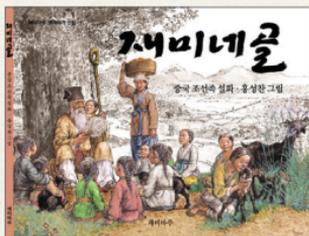


+

영이야기 선집

우리 조상들의 정서에
독아있는 흥미롭고도
유익한 감흥을
담고 있습니다.
금지와 뿌리있는
민족으로서의
삶의 자취와
꿈꾸어온 판타지,
맛깔스러운 정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미네골



중국 조선족 설화
그림 홍성찬
290×220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1999년 12월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3학년 1학기, 2010)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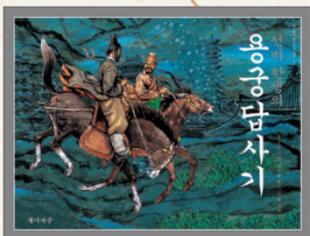
+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중국 길림성, 옛날 간도 지역으로
불리던 이곳에는 고향을 떠나 살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 놓았다. '재미나게 사는 마을'이란
뜻의 '재미네골'은 이 마을의 이름이 이렇게 된 까닭을
알려주고 있다.

🎧 판소리로 듣는 옛이야기 재미네골

그림책 『재미네골』이 판소리 이야기로 거듭났다. 우리
가락의 노래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꾸밈없는 생활상과
넉넉한 마음을 CD 한 장에 담았다. 넉넉한 우리 가락의
노래와 함께 조상들의 꾸밈없는 생활상과 마음씀씀이가
푸근하게 가슴에 젖어줄 것이다.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2

선비 한생의 용궁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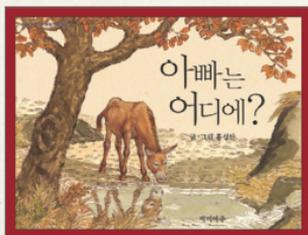


홍성찬 그림
김시습 원작
박철 각색
290×220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04년 12월

+
옛날 개성 땅에 선비 한생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하늘로부터 내려온 두 사람이 글을 읽고 있던
한생을 용궁으로 데려간다. 용왕은 새로 지은 별당에
울릴 축문을 지어줄 것을 청하게 되고, 한생은 글 솜씨를
발휘해 용왕으로부터 지극한 칭송과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화려한 용궁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한생은 인간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운 여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을 한글로 번역하여 각색한
것이다. 오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의 꿈이 화려하게 그려진
판타지의 세계가 우리 아이들을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상상 속으로 데려갈 것이다.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3

아빠는 어디에?



홍성찬 글·그림

290×220mm, 32쪽

양장제본

대상 :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09년 4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
엄마 조랑말은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탄전을 핀다.
안골에는 아주 힘이 센 당나귀 아저씨가 사는데 나만 보면
반가운 듯 다가와 볼을 핥는다. 나는 그걸 싫어 뒷발질을
해댄다. 그런 어느 가을날, 나는 무서운 승냥이를 만나
쫓기게 되는데 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당나귀 아저씨.
간신히 목숨을 구해 산기슭으로 내려온 나는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수면에 비친 저 얼굴은……. 도대체 나는
누구를 닮은 것일까?
원로 일러스트레이터 홍성찬 할아버지의 구수한 송농맛
같은 말 이야기. 등장 동물들의 생김새와 성질,
특징 등이 잘 드러나 재미를 더해준다.

지팡이 하나로



조재훈 글, 홍성찬 그림
290×220mm, 48쪽, 율컬러, 양장제본
대상: 초등 1~3학년
초판발행일 : 2012년 6월

+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울 무렵, 동해안 바닷가 마을에 배 한 척이 흘러들어 온다. 배 안에는 지팡이 하나와 나무괘짝이 실려 있었는데, 고기잡이 노파가 이것을 발견하고 괘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잘 생긴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다. 이 아이는 탈해라는 이름을 얻고 능름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이가 곧 신라의 제4대왕인 탈해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국설화에는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가 많은데 탈해왕 역시 신화적 상상력이 빚어낸 불세출의 영웅이다.

민화 그림책 시리즈 1

토끼의 소원



윤열수, 이호백 기획·글
195×267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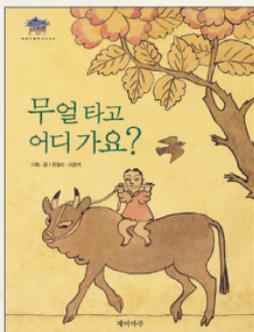
+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
우리 민화 열네 작품을 엮어 이야기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따뜻한 봄날에 즐겁게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와 맞닥뜨린
토끼가 여러 동물들의 소원을 재미나게 들려준 덕에
호랑이의 밥이 될 뻔한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영리한 토끼와 좀 바보스런 호랑이의 표정이
익살스럽다.

닭, 거북이, 학, 사슴, 원앙, 잉어, 원숭이 등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이 각각 장수, 건강, 평화,
가족의 화목 등 소원을 전해준다.

민화 그림책 시리즈 2

무얼 타고 어디 가요?



윤열수, 이호백 기획·글
195×267mm, 32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4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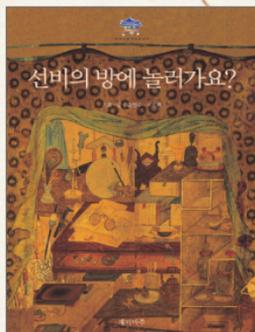
+
우리 민화 속에는 사람이 동물을 타고 가는 그림이 자주 등장한다. 이 동물 중에는 실재하는 동물도 있지만 용이나 봉황 같은 상상의 동물도 있다. 학을 타고 피리를 불고, 꽃사슴을 타고 가기도 하고, 이른봄 나귀를 타고 매화를 찾아나서고, 신령스런 거북을 탄 신선이 감로수병을 들고 용궁으로 향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들은 동물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걸까? 숨은 그림을 찾듯 재미나게 우리 민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우리 민화 그림책 시리즈의 하나로 소박하고 감칠맛 나는 이야기와 정서가 듬뿍 담겨 있다.

민화 그림책 시리즈 3

선비의 방에 놀러가요?



윤열수, 이호백 기획·글

195×267mm, 30쪽

4도, 양장제본

대상:만 4~7세

초판발행일 : 2007년 4월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

항상 책을 가까이해 두고 공부만 하던 선비의 방은 어떻게 꾸며 놓았을까? 옛날 사람들은 어려서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자라서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고, 늙으면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것이 선비가 걷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 선비의 방을 들여다보는 호기심은 각별하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 수북하게 쌓인 책 더미를 뒤져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홍성찬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민속·풍물화 기행 시리즈

원동은 글, 홍성찬 그림

282×200mm, 80쪽, 4도, 양장제본

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 초판발행일 : 2006년 1월



제1권 농촌생활

얼씨구 절씨구 풍년이 왔네

+

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2007년 아침독서 추천도서

+

해 뜨면 논밭에 나가 쟁기질하고 씨 뿌려 거름 주고

가꾸어 거두어 들인다. 툼툼이 닭과 누에도 치고

한여름에는 원두막에서 낮잠을 즐기기도 한다.

또 밤에는 책을 읽거나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는다.

흙냄새 물씬 나는 옛 농촌 생활의 정감어린 풍경을 실감

나게 그려내었다.

제2권 민속놀이



으랏차차 신나는 놀이마당

+

따로 놀이방이나 놀이기구가 있을 리 없었다.
밤톨만한 돌멩이만 있으면 공기놀이를 하고 또 서로 살바를
붙잡고 으랏차차 힘 한번 쓰면 씨름판 한마당이 펼쳐졌다.
정월의 연날리기·쥐불놀이에서부터 그네뛰기·고싸움·
차전놀이 등과 겨울철의 얼음낚시·곰사냥에 이르기까지
흥겨운 민속놀이 대 퍼레이드.

제3권 옛사람의 한 생애

오줌싸개가 정승 판서가 되었다네

+

삼신할미의 점지를 받아 태어난 아기는 온 집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란다. 남자아이는 서당에 다니고
과거시험을 보아 벼슬길에 오르고, 여자아이는 니물캐고
손톱에 봉선화물을 들이다가 정든 님을 만나 혼례를 치르고
바느질·절구질·길쌈에 손등에 물 마르는 날이 없다. 사람이
태어나 늙어서 죽기까지 한평생, 그 길을 따라가 본다.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의 한평생을 그림으로 그려 남기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평생도>이다.





제4권 옛풍물

괴나리봇짐지고 세상구경 떠나보세

+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았을까? 배가 아프면
 약방에 가고 몸치장은 어떻게 했을까? 대장간 앞
 주막거리를 지나면 홍살문과 서낭당이 보이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염전이 있고 독살과 죽방렴도 있었다.
 도자기 굽는 사람에 심마니와 보부상도 만나보고
 빨래터·연자매·물레방아 등 없는 것이 없는 옛날
 풍물거리를 찾아가 본다. 발 딛는 곳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은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

제5권 민속명절 기타

매일매일이 명절날만 같아라

+
 우리의 고유명절인 음력 정월 설에서부터 대보름·
 초파일·단오·추석·동지 등 명절날에 갖는 풍속과 놀이,
 먹거리 등은 어떠했을까? 매일매일이 마치 명절날만
 같았던 즐겁고 흥겨운 우리네 열두 달의 행사, 거기에는
 무엇무엇이 있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배워 민족문화의 소중한 꽃을 피워나가야 할
 것이다.



+

2015-16

누리과정

권장도서

1. 신체운동, 건강



재미마주 필라민트 북 1

나하고 놀자

대상 : 만 3세 이상

얼굴 표정 바꿔 가며 신체 인식하기



재미마주 A'Q그림책 시리즈 - 1

한글이 된 친구들

대상 : 만 3세 이상

한글 자모 움직여 한글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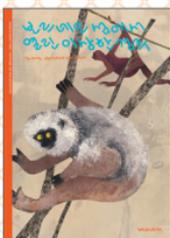


재미마주 A'Q그림책 시리즈 - 2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야기

대상 : 만 3세 이상

세 개의 그림꼴에 맞추어 여러 가지 물건 만들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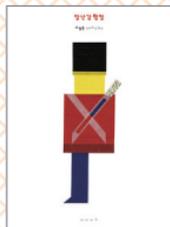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1

보르네오 섬에서 열린 이상한 경주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각 동물들의 몸동작에 따른 재주와 경기 알아보기

2. 의사소통



세계명작 동화 1 장난감 병정의 사랑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세계적 명작동화 읽고 감상하기



세계명작 일러스트로북 1

노인과 바다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인간불패의 신화 읽고 이해하기



재미마주 그림책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상황이 바뀐 느낌, 생각하고 말하기



재미마주 그림책

토끼 탈출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토끼에 빚댄 아이들의 말썹 부리기

2. 의사소통



재미마주 그림책
마법에 걸린 병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그림을 들춰보며 호기심과 상상력
키우기



재미마주 그림책
나야, 나!

대상: 4세 ~ 7세

여러 사람 중에 진짜 주인공 찾아보기



재미마주 그림책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한 가정의 가족애와 배려 말하기



재미마주 그림책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사람과 동물과의 소통과 나눔 알아보기

2015 누리과정 권장도서



재미마주 그림책
**표범의 얼룩무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재미마주 그림책
뽀끼뽀끼 숲의 도깨비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새로운 이미지의 캐릭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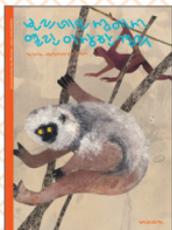


재미마주 그림책
도시로 간 꼬마 하마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슬픔, 어긋남
들어보기

3. 사회관계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1
**보르네오 섬에서 열린
이상한 경주**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동물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습성
알아보기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2
하늘을 나는 마지막 돼지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바른 길 찾기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3
파란 자전거

대상: 4세 ~ 7세

봄날 풍경에서 느끼는 화사함과
평화로움 누리기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4
도대체 넌 누구니?

대상: 만 4세 ~ 초등 1학년

전혀 색다른 동물세계에 관심 가지기

2015 누리과정 권장도서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5
위풍당당 꼬마장군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공동체 사회에서 공동선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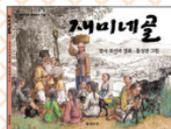


재미마주 신세대 그림책 6

빨간 초코볼의 서울여행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예측할 수 없는 여행길을 통해
인생 엿보기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1

재미네글

대상 : 만 4세 ~ 초등 저학년

옛날 평화롭고 화목한 마을 이야기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2

선비 한생의 용궁답사기

대상 : 만 4세 ~ 초등 저학년

옛 조상들의 꿈과 신비한 체험 엿보기

3. 사회관계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3

아빠는 어디에?

대상 : 만 4세 ~ 초등 저학년

동물사회에서의 훈훈한 가족애 보기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4

지팡이 하나로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옛날 건축설화 알아보기



재미마주 옛이야기 선집 5

봉황, 눈을 뜨다

대상 : 만 5세 ~ 초등 저학년

우리 민족 탄생에 관심 가지기



민화 그림책 시리즈 4

고을을 구한 원님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무속 신앙에 관심 갖고 알아보기



제 1권_농촌생활
얼씨구 얼씨구 풍년이 왔네

대상 : 초등 전학년

옛 농촌사회의 이모저모 알아보기



제 2권_민속놀이
오리새끼 신나는 놀이마당

대상 : 초등 전학년

전통사회에서의 놀이 지키기



제 3권_옛사람의 한 생애
오동씨가 정승 판서가 되었다네

대상 : 초등 전학년

옛 우리 조상들의 한 생애를 알아보기



제 4권_옛풍물
과나리뽕집지고 세상 구경 떠나보세

대상 : 초등 전학년

옛 전통사회의 풍속과 풍물 알고 지키기



제 5권_민속명절 기타
매일매일이 명절날만 같아라

대상 : 초등 전학년

옛 고유 명절을 알아보고 소중한 문화
가꾸기

4. 예술경험



재미마주 어린이 미술관 1 - 이한우 편 **나의 살던 고향은**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한국적 원로화가의 작품 감상하기



재미마주 어린이 미술관 2 - 장미셀 오토니엘 편 **내 머리 속의 섬**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현대예술가의 환상적 세계 탐색하기



재미마주 어린이 미술관 3 - 이응노 편 **하나에서 만까지**

대상 : 초등 전학년

한국적 세계적 작가의 문자 추상
경험하기



재미마주 어린이 미술관 4 - 다니엘 뤼렌 편 **예술아, 어디에 있니?**

대상 : 초등 전학년

곳곳에 숨어있는 세계적인 미술가의
예술과 놀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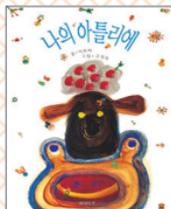
2015 누리과정 권장도서



재미마주 그림책
100개의 화분

대상 : 4세 ~ 7세

기발한 방법으로 100개의 화분
표현하기



재미마주 그림책
나의 아틀리에

대상 : 만 4세 ~ 초등 1학년

상상력만으로 그림 그리기



재미마주가 만난 그래픽 명작 1

야, 요 책 봐라

대상 : 4세 ~ 7세

플랩북으로 펼쳐보는 언어와 그림의
세계 알려주기



재미마주가 만난 그래픽 명작 3

**수리수리마수리
요걸까? 조걸까?**

대상 : 4세 ~ 7세

독특한 매직쇼로 엉뚱한 세계 보기

